

“올 여름 전남 해수욕장으로 오세요”

7월5일 ‘보성 울포 솔밭’ 시작으로 54곳 운영
레저·문화·체험 다채…손님맞이 준비 본격화

전남도는 30일 “7월5일부터 ‘보성 울포 솔밭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총 54개 해수욕장이 잇따라 개장해 본격적인 여름철 손님맞이에 나선다”고 밝혔다.

‘보성 울포 솔밭 해수욕장’은 해수욕자탕과 해수풀장, 해안누리길 등 다양한 테마를 갖춘 명소로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길이 4km에 달하는 광활한 은빛 백사장과 울창한 해송림 등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완도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은 7월8일 개장한다.

성수기로 접어드는 7월 중순까지 ‘고흥 남열해돋이’, ‘장흥 수문’, ‘해남 송호’, ‘함평 돌머리’, ‘진도 가계’, ‘신안 우전’ 등 유명 해수욕장이 연달아 개장해 전남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의 방문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전남에선 매년 54개소 내외의 해수욕장을 운영한다. 100만명 이상의 이용객이 여름철 해수욕을 즐기기 위해 찾고 있다.

전남도는 ‘휴식과 오락이 공존하는 곳…전남해수욕장’ 슬로건을 내세워 차별화된 비교우위 자연환경을 적극 알리고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특히 천사대교 등 연륙 연도교 개통으로 섬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2천165개의 섬이 은하수처럼 오밀조밀하게 자리잡은 다도해를 어는 해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 조용히 쉬어갈 수 있는 ‘섬 해수욕장’ 홍보책자를 전국에 배포했다. 섬에서 즐기는 해수욕은

나만의 감성여행을 원하는 여행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고 도시생활에 지친 현대인에게 최적의 휴식과 힐링 장소로 손색이 없다.

해수욕장별로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완도에선 해양치유COOL 콘서트, 보성에선 야간 영화상영·버스킹·락페스티벌·활어잡기 체험행사, 영광과 진도에선 해변가요제, 해남에선 용왕제 푸른음악회 등 해수욕장 이용객과 함께 하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또한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광을 알리면서 친숙한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각종 해양레저스포츠 대회와 체험교실, 갯벌 축제도 해수욕장을 배경으로 운영한다. 목포에선 8월에 국제파워보트대회를, 여수에선 8월에 전국해양레저스포츠대회, 9월에 바다핀수영대회를, 보성·함평에선 7-8월 전국비치발리볼대회를 신안에선 8월에 섬 갯벌 올림픽축제를 연다.

온가족이 함께 무료로 해양레저스포츠

를 즐길 수 있는 체험교실도 마련됐다. 목포에서 5-9월 요트, 여수에서 5-9월 딩기 요트, 윈드서핑, 카약, 패들보트교실이 운영된다. 광양에선 7-8월 윈드서핑교실, 보성에선 5-11월 세일링보트, 씨카약, 레프팅보트, 항해교실, 장흥에선 7-8월 수상자전거, 투명카약, 함평에선 6-9월 카약, 래프팅 체험교실 등이 운영된다.

전남도는 해수욕장 이용객이 안전한 피서를 즐기도록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샤워장,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개장 1주일 전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주변 식품 취급업소 지도 점검을 하고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요금을 근절할 계획이다.

이상심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해수욕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각종 시설물을 정비해 불편함이 없는 여름 힐링 공간으로서 손님맞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광주시, 렌터카 불법영업행위 합동점검

내달 3-21일 무등록 영업·종합보험 미가입 등 단속

광주시는 6월3일부터 21일까지 자치구, 렌터카조합과 합동으로 관내 62개 렌터카 업체의 불법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사업범위를 벗어난 영업 ▲무등록 영업 ▲렌터카 종합보험 미가입 ▲차고지 시설기준 미확보 등 렌터카 등록조건 이행 및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최근 미성년자 렌터카 이용 사고로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만 18세

이하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광주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무등록 업체의 영업행위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등록 업체 및 무보험 차량 등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며 “해당 불법차량이 운행되지 않도록 렌터카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기자

광주도시철도, 세계수영대회 붐업 박차

대형 홍보물 설치 등 안내 할발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붐업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공사는 서구 마북동 공사 본사 사옥 외벽에 수영대회를 소개하는 15x5m의 대형 홍보물을 래핑,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또한 상무역에 수리달이 캐릭터를 활용한 포토존과 대형현수막을 설치하고 각 역사마다 홍보 배너로 대회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5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회기간동안

외국인 손님들이 언어의 장벽 없이 광주의 매력을 즐길 수 있도록 통역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역사 곳곳에서 다채로운 버스킹 공연을 통해 광주의 맛과 흥을 세계 속에 알릴 예정이다.

전국적인 관심을 끌어 모으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이달 제주도에서 열렸던 한국철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대회를 홍보한데 이어, 다음달 부산에서 열릴 CEO 경영공간 회의에서도 각 지역 도시철도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대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참여를 제안할 예정이다. /김다이지자

광주 국악 상설공연, 내일 6월 첫째마당

광주 대표 문화관광 콘텐츠인 ‘광주 국악 상설공연’ 6월 첫 번째 공연이 6월 1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열린다.

광주시립창극단이 꾸미는 이번 공연은 유영애 예술감독, 이정주씨의 사회로 민요, 살풀이, 흥보가, 향발무, 앓은 발사물놀이 등을 한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첫 무대는 남도민요 중 하나로 널리 불리는 ‘새타령’이 연다. 이어 중요 무형문화재 제97호로 지정된 민속춤의 하나인 ‘살풀이’가 선보인다.

광주시립창극단이 제54회 정기공연에 올린 창극 ‘흥보가’ 중 비단타령과 화초장 대목을 담은 단막극 ‘흥보가’, 향발이라는 작은 제금을 양손에 마주 들고 치며 추는 춤 ‘향발무’도 만나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꿩파리, 장구, 징 등 4개 악기를 연주하는 ‘앓은발 사물놀이’가 신명 나는 무대를 꾸민다.

관람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선착순 입장할 수 있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79)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다이지자

광주환경공단 ‘함께 green 캠퍼스’ 호응

광주환경공단이 대학으로 찾아가는 ‘함께 green 캠퍼스’ 프로그램을 추진해 대학생들을 비롯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8일 전남대를 시작으로 2차로 30일 광주대에서 실시됐다.

올해 1차로 추진된 전남대에서는 환경에너지공학과 동아리인 ‘GPS (Green Partner Society)’와 공동으로 부스를 운영, 학생과 학생이 만나는 맨투맨 방식을 활용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공단은 음식물쓰레기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기 게임, 생활 속 물 절약 퍼즐 맞추기, 태양광 미니 자동차 만들기 체험 등도 마련했다. /최권범기자



금남로 모습 담은 가림막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간직한 전일빌딩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30일 오후 광주 금남로의 모습을 담은 공공디자인 가림막(일부분)이 설치 완료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디자인은 광주시가 공모를 통해 모집한 출품작 중 최우수작에 선정된 작품이다. /김래리기자

영암서 내달 1-2일 모터스포츠 대회 개최

아마추어 등용문 ‘KIC-CUP 투어링카’ 2라운드

아마추어 레이서의 등용문인 ‘KIC-CUP 투어링카 레이스’ 2전이 6월1일부터 이틀간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모터스포츠 기초 종목인 카트를 포함해 드리프트, 모터사이클 등 5개 종목에 170대가 참가한다. 부대

이벤트로 가상레이싱 대회도 열린다.

일반인 참가율이 가장 높은 타깃-타임트라이얼(Target-Time Trial) 종목은 참가 선수가 사전에 지정한 목표 시간에 가장 근접한 기록으로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너무 빨라도, 또 느려도 안 되는 종목이다. 헬멧, 장갑, 슈트 등 기본

안전장구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터스포츠 입문 종목이다.

2019 시즌에 새롭게 도입된 TCTA (Touring Car Time Attack) 종목은 프로와 아마추어 구분 없이 타이어 크기를 기준으로 4개 등급으로 나눠 벌어진다. 지정된 시간에 1바퀴를 빠르게 주행한 기록으로 우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모터사이클은 500cc를 기준으로 상·하등급으로 구분해 12바퀴를 가장 빠르게 주행한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가족과 함께 자기 차로 경주장을 돌아보는 ‘다같이 돌아 경주장 한바퀴’도 진행된다. 슈퍼카 전시와 함께 경주장을 미끄러지듯 주행하는 드리프트 택시체험도 즐길 수 있다.

이번 대회는 주관방송사인 리빙TV를 통해 녹화 중계된다. 대회 관련 각종 정보는 영암 경주장 누리집(www.koreacircuit.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전남개발공사 KIC사업단 (061-288-420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정기자

광주매일신문 28

한수원이 가장 잘 하는 일, 바로 에너지 채용입니다

원자력, 태양광부터 풍력, 수력, 연료전지까지 -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무엇과도 함께 해왔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에너지가 가능해질까요? 한국수력원자력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에너지를 기대하세요. **종합 에너지기업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수원, 깨끗한 에너지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